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7.5.(금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권 민 영 사무관 (02-2100-2853)

제 목 :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현재의 고정금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, 금융위가 발표한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임 [한겨레 7.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① "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천억~1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(자금조달비용지수)를 7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, **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**"

② "**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**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, 역시나 무리수를 둔 '**과대포장**'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"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**금융위원회**는 **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**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**새로운 잔액기준 COFIX**를 **도입하기로 하였고**('18.1월) **7.15일부터 공시됨**

→ **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**('16.8월~'18.8월기준)

□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**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**하는 것은 **적절치 않음**

○ **새 코픽스**는 **"변동금리 대출상품"에 활용**되는 **기존 코픽스**(잔액기준)**를 대체함**으로써 **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**가 **하락하는 도입효과**가 있음

○ 이와 별개로 **고정금리 대출금리**는 **시장상황에 따라 등락**을 보이는 것으로, **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**보다 **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***

* 일반적으로 **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**에서는 **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**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**변동금리가 낮아질 것**임

○ **고정금리/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**에 있어서 **소비자**는 **고정금리/변동금리**의 현재 **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**하고 이자산정 기준,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**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**하게 됨

□ 또한, 지난 1월 **금융위원회**가 파악하여 발표한 **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**는 **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**한 것으로,

○ **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** 및 **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**을 **감안**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

○ 따라서,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**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**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**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